

한형조 무문관 탐방

남전의 고양이

*동서 양당의 학인들이 고양이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남전이 이에 고양이를 잡아들고 말했다. "대중이여, 말을 하면 살고, 말을 못 하면 죽는다." 대중들은 말이 없었다. 남전은 고양이를 갈라 버렸다. 저쪽, 조주가 밖에서 돌아왔다. 남전이 이 일을 조주에게 알렸다. 조주는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더니 나가버렸다. 남전이 말했다. "내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텐데."

*나 해가 말한다. "말해 보라. 조주가 짚신을 머리에 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만일 여기서 한 마디 내릴 수 있다면, 남전의 영이 헛되지 않음을 알리라. 그러지 못한다면, 험난!"

*송하어 가로되, "조주가 그 자리에 있으면 영을 거꾸로 시행했겠. 칼자루를 뺏어줘서 남전이 목숨을 구걸했으리라."



그림: 이준석

남전은 한 칸에 고양이를 참해 버린다. 심복한 피법세가 확 끼쳐오는 듯하다. 공안 가운데 가장 괴력한 것을 꼽으려면 아기의 손가락을 자르는 구지, 그리고 법당의 목불을 태우는 단하, 그리고 여기 고양이의 목을 가르는 남전의 칼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남전이 잔인(?)하다.

남전은 어려서 계율을 익히고 능가와 화엄과 중론을 차근차근 익힌 사람이다. 살생을 최하의 금기로 알고 있는 불문에서 죄없는 고양이의 목을 따버린 파천황, 고양이의 목을 동서 양당의 스님네들의 목숨을 따버린 것이고 공안을 읽는 우리의 목숨을 따버린 것이다. 진리를 모르던 삶에서도 죽은 목숨이라는 뜻이 거기에는 담겨 있다. 나는 지금 내 목 언저리를 쓸어보고 있다.

자녀가 되어 밖에 나갔던 조주가 돌아온다. 남전은 낮의 비극을 조주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조주를 바라본다. "너라면 고양이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라는 눈으로. 조주는 말없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가버린다. 남전은 조주가 짚신을 알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죽지 않았을 것."

화두의 눈은 짐작대로 말없이 짚신을 이고 방을 나간 조주의 행동에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또한 평의 서두에서 그 의미를

南京新猫: 南京和尚, 因東西兩堂爭貓兒, 泉乃揚起云, 大眾道得即教, 道不得即斬也. 衆無對. 泉遂斬之. 晚, 趙州外歸, 泉舉以問, 州乃脫履, 安頭上而出. 泉云, 子若在, 即教得貓兒, 無?曰, 且道, 趙州頂草鞋, 意作何?生. 若向者裏下得一轉語, 便免南泉令不道行, 其或未然, 險. 翠曰, 趙州若在, 倒!此令, 奪却刀子, 南泉乞命.

“진리 모르고 살면 죽은 목숨”

조주가 짚신 머리에 인 뜻 어디에 있나

압축과 생략이 두드러지고 장면 전환이 빠른 글이다. 그래서 짐짓 간결해 보일 수 있지만, 상세하게 들여보면 이렇다. 남전의 문하에는 사람이 많았다. 동서 양당에 둘러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고양이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본문은 "고양이를 다루고 있었다(爭猫兒)"라고만 썼다. 속세의 사람들처럼 고양이의 소유권 때문에 싸운 것 같지는 않다. 고양이에게 과연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쟁이 오갔을 것이다. 짐승의 불성을 논하는 것은 당시의 한 유행이었던 듯하다. 초기의 교설이 특정한 종성(種性)에, 가령 일천제나 불법을 모독하고 업수(業壽)가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불성을 제한하다가 대승의 발원과 함께 삼라만상 일체만물에 이를 허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논쟁의 한 가운데에서 조주의 일대공안,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가 태어난 것이다.

고양이의 불성을 둘러싼 논쟁을 본 스승 남전이 고양이를 들고 외쳤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고양이를 살려 주겠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양이를 죽이겠다." 다들 묵묵부답이었다. 화두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남전의 문하에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것은 조주 하나뿐이었다. 마조의 법맥은 그래서 남전이 아닌 동문 황벽을 통해 번성하게 된다. 물론 나중의 일이다.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역시 진실은 언설 속에 있지 않다. 의식과 행동의 가장 견직한 양식, 전문용어를 쓰지 않으면 불성의 현현, 법계의 소식은 식(識)과 경(境)의 변연에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곳은 일상적 감각이나 습관적 의식 너머의 낯선 세계이다. 당연한 결과로 논리나 판단이 따라잡을 수 없다. 짚신은 원래 밭에 신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주는 그 무시이래의 습관적 판단을 뒤집어 놓는다. 짚신은 머리에 신는(?) 것이다! 그 행위가 상징하는 것이 어디인지 가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실명이 불가능하기에 조주는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그것이 남전이 기대한 (위대한 한마디)였다. 불성에 대한 본분한 논란은 무익하다. 아니 차라리 유해하다. 불성의 실체는 자신의 내부를 의식적 분별 없이 들여다 보아야 하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벌(心行處滅)의 자리이다.

고양이의 목을 친 남전의 영(令)은 논란과 판단의 상대적 의식을 극단적 방식으로 경계한 것이다. 그렇지만 글이 그래야만 했을까. 보다 온건하고 절충한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혹 조주의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지상한 성향은 스승 남전의 괴력함에 대한 반발은 아닐까. 과연 해개의 송대로 조주가 있었더라면 남전의 칼을 빼앗아 거꾸로 남전을 겨누지 않았을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부전스님 초빙

학원에 다니시는 (공부하시는) 오전반, 오후반 부전스님을 초빙합니다.

※조계종 스님 종무소 (02) 993-3744

무전장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교리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공부할 제 5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터리 웅전갤러리3층)
3.개강일시	1997년 9월 7일(일)오후6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무전장스님, 김재일 법사
6.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문의 : 사무국 TEL: 732-1206~8 FAX: 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3층)

동산반야회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사

◆ 인사 말씀 ◆

귀의 상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효성석재공사 김인호 합장

효성석재는 부처님 조성이나 석탑, 석등을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성석재는 규모를 자랑하지 않고 숙련된 기예와 불심으로 조성합니다.

◆ 주요 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양 삼성사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천 송도선원 -원형천지탑 및 심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선법회사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효성석재공사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대표 (0357) 542-1527~8 야간 (0351) 874-4685

교직자 양성 전문 교육

제24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이안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경, 요령, 범고)다루는법, 도량식,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대계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9월 1일 ~ 10월 6일

■ 개강일시 : 1997년 10월 6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포교과정

※ 본원은 초중급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法數로 배우는 불교

<30>

인간은 괴로운 존재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만나고 헤어지고 얻고 잃고 번민하는 모든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괴로움을 해탈과 열반을 얻어야만 벗어나게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은 인생 자신이 지니고 있고 무명과 번뇌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을 여의고 해탈 열반의 안전한 경지에 이르는 여러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셨는데 이것을 '도'라고 한다. '도'를 소명하는 방법, 해탈에 이르는 방법으로서의 도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므로 여러 가지의 길이 있었으나 부처님께서는 서른 일곱 가지의 방법을 일곱 묶음으로 묶어서 가르치셨다. 이것을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 혹은 삼십칠도분(三十七道品分)이라고 한다. 이른바 고(苦, 고통), 집(執, 고통의 원인인 번뇌), 멸(滅, 고가 소멸된 해탈의 경지), 도(道, 고통을 소멸하는 길들), 사념제중의 '도' 속에 서른 일곱 가지의 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사념처(四念處, 네가지에 대한 주의집중) 사정근(四正勤, 네가지 끊고 밟아야 할 마음) 사여의족

칠각지

(四如意足, 네가지 자유자재 하는 마음) 오근(五根, 다섯가지 뿌리내려야 할 마음) 오력(五力, 다섯가지 갖추어야 할 힘) 칠각지(七覺支, 일곱가지 깨달음에 나아가는 법) 팔정도(八正道, 여덟가지 바른길)를 모두 합치면 삼십칠이 되는데 이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팔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각 지분들마다 무슨 큰 특징이 저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 내용들이 중



김영수 작 <운주사 소견>

선악구별-내면몰입-마음비우기 등 열반·안락 얻기위한 7가지 수행법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욕심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비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태법각지(擇法覺支)로 마음에 일으키는 모든 삼람살이들을 잘 살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일으키는 것은 일으키는 분별능력을 말한다. 엄각지에 의해서 성냄과 욕심을 자신의 마음에서 보았다면 그 것은 즉시 버릴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를 재빨리, 분별하고 결정하되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욕심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비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태법각지(擇法覺支)로 마음에 일으키는 모든 삼람살이들을 잘 살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일으키는 것은 일으키는 분별능력을 말한다. 엄각지에 의해서 성냄과 욕심을 자신의 마음에서 보았다면 그 것은 즉시 버릴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를 재빨리, 분별하고 결정하되

악법을 버리고 선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번째는 정진각지(精進覺支)로 번뇌가 일어나도록 방지하고 계르는 것이 아닌 힘써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은 하다가 해서 안되고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한다. 네번째는 사각지(捨覺支)로 마음의 광등을 가리킨다. 좋고 싫음, 사랑과 미움, 나와 나, 율고 그름 등의 상대와 시비심이 모두 자기 집착에서 나온 줄을 바로 보고 버려서 그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는 정각지(定覺支)로 마음이 바랄 대상에 끌려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움직이지 않는 정(定)에 들어 일체의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섯째는 희각지(喜覺支)로 마음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다. 마음이 내면을 향해 깊이 몰입되면 모든 번뇌가 점점 사라져 큰 기쁨을 느끼는데 이 기쁨은 세간의 어떤 즐거움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일곱 번째는 경안각지(輕安覺支)이다. 여기서는 일체의 들뜨고 혼란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평온하고 안락한 마음만이 지속된다. 이곳에는 근심과 걱정과 고뇌가 없다. 혹은 다소나마 치러도 수행하는 힘으로써 얻어지고 미세해진다. 칠각지는 수행의 과정이면서 수행의 완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칠각지를 닦는 것은 인간이 고통 여의고 최상의 낙을 얻기 위해서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마음 관찰과 집중을 배우는 것이 칠각지 수행의 대의가 아닌가 싶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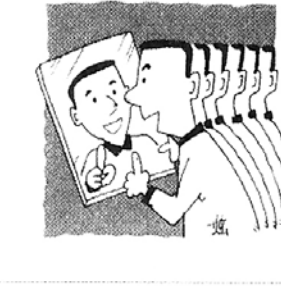
불교와 수학

연기와 무한

김용운

지난 호에서는 수학적 귀납법과 연기를 묶어서 생각한 현수법정대사(賢首法藏大師)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자연수 전체는 무한이며 이 무한이 하나의 같은 원리인 연기의 고리에 지배된다는 것이다. 수학에서는 귀납법이 원리이며 법정대사는 연기와도 한다. 이 원리에 주목할 때 무한의 대상이 하나의 통합체가 됨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화엄철학은 무한과 연기를 중심으로 둔 철학이다. 광범한 속인들도 때때로 실재로 무한을 목격함으로써 충격을 받은 때가 있다. 필자는 어떤 화엄상에서 손을 씻는 중 정면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이 무한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았다. 앞의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이 뒷면에 있는 거울에 반사되고 그것이 또 이쪽 거울에 비치고 계속 무한의 연를 형성하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법정대사는 이 수법으로 연기와 무한의 관계를 설명한 일이 있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수학 "무한은 그가 포함한 일부분과 대등" 불교 "찰나 속 무한세계 연기고리로 파악"

법정대사는 거울 열 개를 원주 상에 세웠다. 팔방에다 하나씩 세우고 그 위 아래에도 하나씩 놓아 거울의 면이 서로 서로 대면하게 만들어 거울들의 간격을 각각 똑같이 하여 그 가운데에 불상을 놓고 촛불로 그것을 비추었다. 그것들이 서로 서로 비추고 비추이는 모양을 했다. 이것은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因緣)와 한 점이 무한에 대응함을 보인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수학적으로 정확히 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 단순하고 명확한 법칙이다. 현대수학에서는 '무한은 그가 포

함하고 있는 일부분과 대등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그것은 수학의 무한을 확립한 칸토르와 데리크가 내린 것이다. (이 사실을 불교에서는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인간이 유한을 초월해서 무한 체제와 합일할 것을 바란다. "제불(諸佛)을 공양(供養)함"에 있어서 일식(一食)의 사 이에 모든 무량(無量), 무수

의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상이 다. 그것은 발상(發想)에 있어서는 현대 수학에서 말하는 무한분석(無限分析)의 개념과 같다. "중생심중 일찰나중 유구백생멸(衆生心中 一刹那中 有百生滅)" 즉 '사람의 마음은 찰나(刹那)에도 무한(九百)의 생각을 할 수 있다.'

법정대사의 '거울'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 생각하자. 사방 팔방이 거울에 비추어지는 불상은 무한개이다. 이들은 서로 비추고 비춰져 있다. 만일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사라진다면 모두가 없어진다. 일찰나(一刹那) 속의 무한의 세계가 형성되고 없어지기도 하는 연기의 세계이다. 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다. 무량, 무수익의 여러 부처에 공양하는 일은 이 연기의 고리를 의식하는 일이다. 부처님 날밤의 무한의 모임으로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연기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이 연기의 이치를 이해할 때 이들 존재가 하나로 귀결된다.

삼라만상이 무한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들에게 공통하는 이치는 '연기'라는 매우 단순하고 명백한 것이다. 수학에서는 이를 무한을 무한으로 보고 해석하는데 불교 철학은 수학적인 무한 이론을 발판으로 한 계단 비약한다. 연기(緣起)로써 파악하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함하고 있는 일부분과 대등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그것은 수학의 무한을 확립한 칸토르와 데리크가 내린 것이다. (이 사실을 불교에서는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인간이 유한을 초월해서 무한 체제와 합일할 것을 바란다. "제불(諸佛)을 공양(供養)함"에 있어서 일식(一食)의 사 이에 모든 무량(無量), 무수

의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상이 다. 그것은 발상(發想)에 있어서는 현대 수학에서 말하는 무한분석(無限分析)의 개념과 같다. "중생심중 일찰나중 유구백생멸(衆生心中 一刹那中 有百生滅)" 즉 '사람의 마음은 찰나(刹那)에도 무한(九百)의 생각을 할 수 있다.'

법정대사의 '거울'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 생각하자. 사방 팔방이 거울에 비추어지는 불상은 무한개이다. 이들은 서로 비추고 비춰져 있다. 만일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사라진다면 모두가 없어진다. 일찰나(一刹那) 속의 무한의 세계가 형성되고 없어지기도 하는 연기의 세계이다. 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다. 무량, 무수익의 여러 부처에 공양하는 일은 이 연기의 고리를 의식하는 일이다. 부처님 날밤의 무한의 모임으로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연기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이 연기의 이치를 이해할 때 이들 존재가 하나로 귀결된다.

삼라만상이 무한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들에게 공통하는 이치는 '연기'라는 매우 단순하고 명백한 것이다. 수학에서는 이를 무한을 무한으로 보고 해석하는데 불교 철학은 수학적인 무한 이론을 발판으로 한 계단 비약한다. 연기(緣起)로써 파악하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